

[종합·해설]

탈북 후 광주 정착 '새터민' 장길수·전다빈씨 평화통일포럼 토론



"가장 큰 고통은 동포로부터 차별"

"경제적인 어려움은 일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동포들로부터 받는 차별은 새터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냉담한 분위기 적응 어렵게 해

탈북 후 2년째 광주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탈북자) 장길수(36)씨는 "새터민이라고 하면 무턱대고 깨리거나 거리를 두는 냉담한 분위기가 적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면서 "능력을 갖고 동포로부터 받는 수모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평화통일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새터민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는 장길수씨 등 3명의 새터민 탈북 사연 및 남한사회 적응 과정, 미래 희망 등에 대한 발표 및 각계 인사들의 자유토론

이 열린다.

토론회에 앞서 14일 본지와 인터뷰를 한 장길수씨는 "정착으로 광주를 선택한 것은 북한 시절 5·18민중항쟁 등 광주라는 도시의 이름을 타 도시 보다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정착 2년이 지난 지금에는 많이 적응이 됐지만 광주에도 새터민에 대한 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모대학 공대 1학년에 재학중인 장씨는 "직장에서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냉대를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면서 "아직도 취업을 할 때 새터민이라고 하면 외국인 노동자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정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모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전다빈(여·32)씨도 탈북과정과 광주생활을 소개한다.

전씨는 지난 1997년 신혼생활 중 생존을 위

해 탈북, 중국에서 7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 돈 때문에 3차례나 팔려 다녔고 강제결혼까지 해 애를 냈다. 그녀는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다 2004년 중국에서 인연을 맺은 한국인 양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른 새터민 24명과 몽골 국경을 넘던 중 중국경계내 총격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자신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외국인 노동자 수준으로 봐

총격사건이 외부로 알려져면서 한국 정부가 협상에 나서 전시 일행의 한국행이 가능했고 전시는 양아버지의 고향인 광주에 정착했다.

또 다른 새터민 박송혜(여·28)씨도 '대학 생활과 법조인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새터민 장길수씨는 "새터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경계하는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말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난 7월 원구성과 함께 새로 출범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15일부터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지방의회가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이 토대를 마련하는 절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전체 시·도의원의 절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떨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500여건, 전남도의회는 1천여건의 감사 자료를 시·도에 요구해놓은 상태다.

◇광주시의회=15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진행된다. 의원들은 ▲문화도시특별법 통과에 따른 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의 실효성 여부, 보육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실 운영 현황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질적 투자 계약 체결 실적 ▲단체수

■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상 쟁점**광주시 일자리 창출 실효성·사회복지시설 지원****전남도 J프로젝트 법인 구성·F1대회 추진 과정**

의회계약 문제점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대책을 추구할 계획이다.

특히 상당수의 의원들이 보육시설·장애인시설·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적절성과 운영의 합리성 부재 등을 집중 추궁하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 저자 누적,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업계의 자구 노력,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어서 이 부문에 대한 시의회와 집행

부의 뜨거운 공방도 예상된다.

◇전남도의회=15일부터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이끌고 갈 메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선도사업인 F1(포뮬러 원) 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010년 F1대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메인 SPC 설립에 필요한 6천억원의 자본금 확보 방안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과 관계 설정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J프로젝트 사업지 구로 농림부가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밝힌 영산강 3지구 간척지의 양도양수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선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 방안과 함께 지난 9월 이기병 의원(민주·나주1)이 제기한 '전남무역 중국수출전진기지 임대료 3억5천만원 횡령 의혹'을 둘러싼 전남도와 전남무역의 관리 및 감사 결과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선거 뒤 논공행상식 인사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 시·군별 국·도비 투자과정에서 재원 배분의 공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묘향산 가는 길****김주정**

사회1부 차장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평양 남새 온실 준공식' 취재 차 방북한 지난 7일 이른 아침, 기자는 회원들과 함께 빨랫줄처럼 쭉 뻗은 '향산고속도로'를 미니버스 2대에 나눠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버스는 평양에서 평북 향산군 묘향산(妙香山·1900m)까지 2시간이 걸렸다.

길은 호젓했다. 162km, 4차선 고속도로에서 어쩌다 버스 한 대를 마주칠 정도였다. 주수가 끝난 들관엔 조경을의 정적이 가득했다. 간혹 벚꽃을 실은 달구지나, 주민들의 자전거 행렬이 차창 밖을 스쳐갔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을 지나자 강바닥 자갈이 훤히 보이는 청천강이 나왔다.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도 있었지만, 포대 가득 나뭇짐을 지고 종종걸음을 치는 아낙네들이 더 자주 보였다. 얇아 보이는 옷자립에 따른 얼굴이었다. 강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삽으로 대형 트럭에 모래를 펴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뒤로 펼쳐진 민동산에 칼바kick이 쌓하고 불었다.

사실 이번 3박4일의 방북은 '취재'가 아닌 '안내 여행' 정도였다. 같은 땅 같은 민족임에도 우리와 다른 체제 때문에 그쪽에서 길잡이 하여 보여준 것과 들려주는 것만 보고 듣고 돌아와야 했다.

그렇다고 느낌이 없을 수 없었다. 북한 들녘에선 몇 년 전 방문했던 베트남 농촌이 생각났고, 평양시내에선 동배를 린이 떠올랐다. 도도한 개방의 물결에 합류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는 달랐다. 베트남과 동독의 거리는 가난해 보여도 활기가 넘쳤지만, 북한엔 '체제' 결속용 선전문구'만 난무했다.

마침내 묘향산에 도착했다. 때마침 최고봉인 비로봉에 살짝 내린 흰 눈도, 서산대사가 머물렀다는 보현사도 일행을 반기는 듯했다. '향산호텔'에서 곰취나물·팔색송어요리에 평양소주 한 잔을 걸치고 나니 언 몸이 훈훈해졌다.

훈훈함은 1.5km 떨어진 탐밀봉 기슭의 '국제친선전람관'에 다다를 때 까지는 이어졌다. 전람관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등소평·미태랑·스탈린 등 세계 178개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21만9천여점의 선물이 전시돼 있었다. 200개 방을 모두 보는데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순간 훈훈함은 담담함으로 변했다.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재현한 밀랍상, 김주석 사후 제3세계의 왕국에서 보내온 왕관까지 진열해 놓은 '사후 선물 모음관'에선 '왕궁 보물창고'가 연상됐다.

"결국, (김일성)왕조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의 목백을 들으며 남북관계·북미대화의 핵심은 '핵무기'가 아닌 '왕조 인정'여부가 아닌가 생각됐다.

/jjinews@kwangju.co.kr

전품목 100% 실크웨어

02-512-8978

(주)자스마일크